

III. 원불교 교화의 문제와 방향

(대도시 교화를 중심으로)

1. 머 리 말

종교는 어떤 때에 성장하고 어떤 때에 쇠퇴하는가? 종교는 어떠한 사회적 배경 아래에서 성장하고 어떠한 상황 아래에서 퇴조하는가? 종교의 흥망성쇠에 작용하는 문화적,인구학적,정치적,사회경제적,사회심리적,지정학적,교단내적인 요인들은 무엇인가?

이와같은 물음들은 오래 전부터 종교사회학 분야에서 끊임없이 많이 논의되어 왔던 중요한 물음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생각해 봐야할 문제와 과제로서는 교화를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이야기 하기에 앞서 교화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행정적,경제적 뒷받침을 어떻게 하면 잘 될것인가를 먼저 논의하고 개선해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2. 앞으로 전개될 미래사회의 모습 및 과제

1) 구 소련의 붕괴와 동서독의 통일 이후의 한 변화 추세가 민족 중심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민족 고유의 문화창달 및 회복이 요청된다 하겠다. 때문에 원불교 교화의 흐름을 한민족의 고유문화는 물론 지역사회 고유문화의 발굴과 보존에 보탬이 되도록 잡아가야 할 것이다.

즉 일원문화는 곧 한민족의 고유문화이어야 하고 이것을 세계문화로 승화발전 시켜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작업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남북이 통일 되었을때 남북의 한민족이 하나로 만날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민족고유의 문화속에서만 가능 하기 때문이다. 그래

서 佛具의 국산화와 성가의 국악화와 의식의 한국화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2) 사회가 과학화 전문화 시대로 점점 더 편리하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교당 운영과 교화방법도 좀 더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사실적인 방향으로 다양하게 변화해 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에 앞장서고 선도해가지 못하면 종교의 기능과 역할에도 영향이 될 뿐아니라 대종사님의 창립정신에도 크게 위배되기 때문이다.

3) 지방화시대의 정책으로 교단운영이 교구나 교당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고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 교구나 교당의 재정비가 요구되며 지역사회 교화의 구체적 정책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새로운 가치관 및 도덕의 재무장을 새롭게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기존가치관과 사고조서는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향도해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방해요인만을 제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각 분야에 있어서 원불교 교리 정신으로(대종사님 사상으로) 재무장해가야 할 것이다. 즉 일원상의 진리에 입각하여 사은사요나 삼학팔조를 실천하는 운동이 범세계적으로 전개 될 것이다.

5) 실천적 신흥종교의(새로운 새종교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다)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왜냐하면 기성종교들의 역할에 회의를 느끼고 있어 새로운 고등종교의 출현과 역할을 요청 받고 있다.

6) 원불교 교화의 핵심요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정기훈련 11과목에 대한 실천적 교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원불교만의 요청이요 과제라기보다 오히려 사회 전반의 요구요 추세이다.

7) 과학이 발달하여 생활이 편리하여지고 과학화 자동화가 이루어질수록 정신건강과 육신건강이 중요시 되며 여가선용에 대한 새로운 문화가 뿌리 내려갈 것이다. 즉 주5일 근무제나 가정내에서 근무하는 등 새로운 생활풍토가 조성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각 교당들이 지금까지와 같이 법회보고 의식집행하고 생활하는 등의 단순기능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교당이 텅텅 비는 쇠퇴기를 일찍이 맞이 하게 될것이다.

3. 현 도시교회의 제문제

1) 교당 재정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원활한 교당운영과 교화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2) 교도의 고령화,여성화와 청소년 교도의 감소로 교화 프로그램의 적용이 힘들고 교도수의 증가속도가 매우 완만하며 새로 입교한 교도의 관리가 허술하다. 아울러 현 교당 법회출석 교도들이 대부분 교당부근의 교도들이 아니라 전철이나 버스로 시간이상 소요되는 먼거리에서 참석하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교무의 인연따라 교도들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는 중앙에서 직접 교도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하겠다. 때문에 인원 동원 및 관리가 힘들고 교당에 대한 소속감이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되며 교당에 대한 불신감마저 싹트게 한다.

3) 현 교당의 구조와 여건으로는 교역자의 주거와 법회와 의식행사 이외에 정기훈련도량으로서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교도훈련이 교구에서나 총부등에서 실시하는 추상적이고 간접적 훈련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법회의 설교나 기도등 의식행사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4) 교당과 교당간의 상호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교당간의 위치가 너무 가깝다거나 가까운 교당을 눈앞에 두고도 먼거리의 교당으로 다녀야 하

는 등 교당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고 있을 뿐아니라 교당에서 향해지는 각종의 식등의 불일치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5) 지역사회단체,기관,이웃들과의 유대강화 및 연대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교화의 본의가 상실되고 있을 뿐아니라 교당이 지역사회에 못하고 있다.

6) 각 교당에서 행해지고 있는 법회 및 각종 의식행사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설교와 원만한(매끄러운) 의식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일주일 동안 시달렸던 심신을 법신불 사은전에 맡기고 싶은 충동을 느끼도록 안정되고 정리된 교당의 분위기인가? 무척이나 수고한 흔적이 깃든 주보나 유인물은 준비 되었는지? 잘 준비되어 정성스럽게 전달하는 설교인가? 책임감을 담은 설명기도가 되고 있는가등...

7) 중앙총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실교화와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즉 중앙총부 인사가 3년 단위로 변화되고(교정원장 및 각 부장의 임기가 3년) 교당교무 역시 6년 단위로 이동되고 있어서 책임감 있고 일관성 있는 교화가 어렵고 교화정책등 프로그램이 교화현장과는 동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8) 총부의식(이리의식=지방의식)과 대도시 의식(서울의식=국제의식)의 차이가 있어 정책결정 등에 갈등의 소지가 있다. 즉 속도 경쟁기대 속에서는 빠른자는 살아 남고,느린자는 퇴보하는 진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앙총부가 지방에 있는 관계로 좋은 점도 많다 하겠으나 답답하고 뒤떨어지는 요인도 많다는 것이다.

4. 도시교화의 방향

1) 현 교금제도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으로 교화의 돌파구를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화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교당의 한달 수입이 교당운영과 인건비 등에 부족함이 있는데도 의식수입은 법절차에 의해 납부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재조정이 불가피할 뿐아니라 교화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2) 대도시에 걸맞는 우수인력의 재배치와 기성교역자들의 재충전 기회를 충분히 부여 하여야 하며 우수 재가교도의 활동반안도 아울러 검토해야 한다.
- 3) 현 교당 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으로 교당이 상시훈련 도량으로 탈바꿈함은 물론 지역 사회교육의 장 및 평생교육의 도량으로 전환해가야 할 것이다.
- 4) 교당 위치의 재조정 및 통폐합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교화가 선행되도록 해야하며 가까운 교당에 소속 되도록 교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5) 보은미(금)를 본래의 보은미 정신에 맞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 했으면 한다. 즉 이웃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되어 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 6) 현 각종의식이 원불교의 전통문화가 되도록 한국 고유의 문화와 잘 접목 시켜 대중화함은 물론 가례편의 모든 의식이 일반대중에 뿌리 내리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 7)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 교구자치제의 정착은 물론 교구 법인의 분리화로 일관성 있고 현장감 있는 교화 교육 자선 생산 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뒷받침 되어져야 할 것이다.

5. 맺 음 말

서울은 정치 문화 경제 예술등 사회활동의 중심지이다. 때문에 서울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곧 사회전반의 문제가 되고 전체의 쏠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은 단순히 한국의 서울로써 서울만이 아니라 국제화의 창구역 발판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의 교화정책이 입안되고 인사 및 제도가 개선 되어져야 하며 일부 총부부서 및 기관의 서울이라도 검토 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지 교화를 해야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인구이동이 심한점을 감안해야 한다. 도심지를 왕래하거나 일하는 인구는 많아도 주거 인구는 점점 줄어 들고 있는 추세이다. 그 이유로는 교통이 복잡하고 공해가 심각하며 세속적인 물결이 높아져 자녀들 교육에 별 도움이 안되고 일상생활에 긴장감을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주택 지역이나 신흥개발 지역으로 이사를 많이 하고 있다. 때문에 서울 변두리 지역 교당 교도수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도심지 교당의 교도는 줄어들며 고령화 되고 있어서 이점에 교화정책 및 방향을 착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도시 일수록 동질성이 매우 빈약하다. 대부분 각기 다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모여들어 각기 다른 일을 바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화가 교리훈련도 중요 하겠지만 화합과 친목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리라 본다. 또 서울의 특징으로는 다양성을 들 수 있다. 무엇이나 공통적인 것이 적고 연대적인 유대감이 약한 편이다. 서울은 표면적으로는 화려하고 매력적이게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매우 굳어 있고 소외계층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대도시(서울)의 특징들을 깊이 연구하고 세밀히 분석하여 도시교화의 방향을 새롭게 잘 모색해가는 슬기를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